

日, 반도체 등 3대 수출규제 해제... 韓은 WTO 제소 취하

산업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특별일반포괄허가제' 적용하고 국가카테고리 조치 원상회복 논의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 3대 품목 수출규제가 3년 8개월만에 해제된다. 한국은 이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한다. 양국은 또 화이트리스트(우대국) 원상 회복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 정부는 맞대응 성격으로 진행했던 WTO 불공정무역행위 제소를 취하하기로 16일 전격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협의 방침 발표 이후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책대화에서 양국은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긴밀한 의견교환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의장대 사열을 마친 후 일본 측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이를 바탕으로 일본 측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일본 측은 수출관리 운용 변경은 화물·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일정한 도착지·품목 조합의 수출을 종합적으로 허가하는 제도인 '특별일반포괄허가제'를 2019년 7월 이전처럼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과 그에 따른 수출규제 조치 해제와 동시에,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양국은 아울러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10~11월 자국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이 나오자 수출규제 보복에 나섰다.

이듬해 7월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소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2019년 8월엔 우리

나라를 수출심사우대국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무역보복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2019년 9월 WTO에 제소했다.

4년여 간 지속되던 양국간 무역분쟁은 지난 6일 우리 외교부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원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양국 외교당국 발표에 뒤이어 우리나라 산업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상 등 수출 관계당국이 조속한 시일 내 양자 관계를 복원시키는 큰 틀의 합의사항을 발표하며 통상무역 분야에서도 해빙 무드가 조성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집현동 비전세미콘을 방문, 바리스타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매출 1조 스타팍리스 10곳 육성 후공정 등 '반도체 생태계' 강화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전략

지난달 반도체 수출 42.5% 급감 설계-제조-후공정 생태계 강화 첨단공정 시제품 제작시 2배 지원

정부가 매출 1조원 규모 팍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10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미래 시장 확대가 유력한 전력·차량·AI 분야 연구개발에 3조 2000억원 투자하고, 우리 강점인 파운드리(반도체 제작 전문 회사)를 활용한 설계와 후공정 등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시스템반도체 분야 수출·투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전략'을 발표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은 10년 연속 수출 1위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지만, 최근 반도체 수출과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2월 기준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42.5% 급감한 상황이다.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으로 인해 주요 수출 품목인 메모리반도체 제품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는 인공지능, 전기화 시대의 산업·안보 공급망의 핵심이지만, 우리가 세계 1위인 메모리반도체에 비해 글로벌 점유율 3% 수준으로 경쟁력이 낮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인 첨단 제조 분야에서는 투자 각축전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기술 투자로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우리의 약점인 반도체 설계 분야 기술·기업, 후공정, 전문인력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보완한다.

특히,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반도체 생태계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국내 팍리스 다수요 공정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양산용 파운드리 개방을 확대하고, 디자인하우스, IP(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과 파운드리 간 협력을 통해 설계 플랫폼과 첨단 IP 개발도 집중 지원한다. 연구개발, 시제품, 인력 등 파운드리-소부장-팍리스 생태계 혁신 협력에 민간 주도로 2조원을 투자한다.

유망 팍리스 성장을 촉진해 2035년까지 매출 1조원 규모 팍리스 기업 10개 육성을 목표로 잡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전경련-日경단련, 20억 파트너십기금 조성

"미래 담당할 젊은 인재 교류 등 공통과제 해결위한 사업 실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한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과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회장은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 파트너십을 선언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전경련과 경단련은 한일경제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한일 경제 교류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를 거듭해왔다"며 "양 단체는 공동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각각 한일·일한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파트너십 기금을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 양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 및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와 양국이 직면한 공통과제의 해결을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왼쪽)과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이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 일한 미래파트너십 선언'을 하고 있다. /전경련

위한 사업의 실시, 미래를 담당할 젊은 인재 교류 촉진 등 양국 간 경제관계를 한층 더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임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트너십 기금은 한일 양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과 협력방안 연구,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 실시와 인재 교류 촉진 등 경제 관계를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관계단체들과 연계하면서 미래를 담당할 젊은 인재 교류 촉진 등도 추진한다.

양측은 서로를 '필수불가결한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자유와 민주주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사회적 과제, 무역과 과학 기술에 입각한 국가 지향 등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참가 기업은 아직 미정이다. 일단 양측에서 각각 10억원을 출연,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향하며 추후 과제와 사업 규모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용 기자 juk@

中企중앙회, 韓·日 중소기업 경제협력 강화

김기문 회장, 비즈니스 테이블 참석 연내 일본서 7개 전시회 개최 계획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과 일본 양국간 중소기업 분야 민간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김기문(사진)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순방 일정에 동행하고 양국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자리하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양국 기업 인간 소통에 나선다.

중기업중앙회는 또 이번 방문에서 업종별 중소기업인들로 꾸린 중소기업 대



표단도 파견한다. 이들은 니카이 도시히로(자유민주당) 중의원과 일본 중소기업청과 간담을 갖고 양국 중소기업 간 인재·기술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니카이 의원은 자유민주당 13선 중의원으로 일본 정치권의 대표적인 '지한파'로 통하는 인물이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한·일 중소기업 협력정책 간담회(2009년) ▲아시아 중소기업 대회(2013년) ▲한·일 중소기업 정책포럼(2014년)을 개최하고, 2019

년에도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해 일본에 중소기업 대표단을 파견한 바 있다.

중기업중앙회는 최근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에 이른 만큼 민간 차원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연내 일본에서 7번의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일본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중기업중앙회 김철우 국제통상실장은 "양국 중소기업 교류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후속 사업들을 실시해 이번 중소기업 대표단 파견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